

신경과 개원의 현황 및 다양한 역할



윤 웅 용

맑은수병원 신경과

About the current status and various roles in regional community

Woong Young Yoon, MD

Department of Neurology, Cleansu Hospital

2019년 2분기 현재 전체 신경과 전문의 수는 1883명으로 상급종합병원 470명, 종합병원 600명, 병원 181명, 요양병원 275명, 의원 326명이 근무하고 있다(복지부 통계 참고).

이 중에 신경과 의사로써 개원한 의원(일차의료기관)은 2019년 2분기 현재 전국적으로 221개가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많이 개원한 곳은 서울로 42개소가 있다. 의원으로 개원하는 경우 많은 곳이 신경계 질환을 특정해서 진료하지만, 일반의(내과, 가정의학과) 처럼 진료를 보거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질환 주로 하는 의원들도 있다.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인력 등의 부담이 큰 병원급 개원은 요양병원이 주가 되고 일반병원 (급성기 병원), 신경과전문병원 등으로 개원은 거의 없다.

또한 신경과 개원의으로써 지역사회, 공공기관, 지역의사회, 신경과학회 및 신경과의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Woong Young Yoon

Department of Neurology, Cleansu Hospital

431-6,9 Jangan-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82-2-2681-0119

Fax: +82-2-2682-0119

E-mail : oyoon05@naver.com